

# 樹黙 秦弘燮과 蕉雨 黃壽永의 금석문자료 연구와 의의

## 최연식\*

- I. 머리말
- II. 樹黙 秦弘燮의 금석문 관련 연구
- III. 蕉雨 黃壽永의 금석문 관련 연구
- IV. 『韓國金石遺文』의 성격과 연구사적 의의
- V. 맺음말

## I. 머리말

樹黙 秦弘燮(1918~2010)과 蕉雨 黃壽永(1918~2011)은 한국 미술사를 개척한 又玄 高裕燮에게 私淑하고 그의 학문을 계승한 제자로서 두 분 모두 많은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한국미술사와 역사학을 아울러 폭넓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 주로 미술사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유물에 새겨진 금석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하였고, 그러한 연구들은 현재까지도 관련 연구의 기초적 성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분의 학문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공동 연구의 일부로서, 금석문 자료에 대한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연구사적 의미를 헤아려 보고자 한다. 두 분의 금석문 자료에 대한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미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미술사에 대한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교수

이해가 얇은 필자가 두 분의 금석문 연구의 의의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연구자들의 혜량과 질정을 기대한다.

## II. 樹默 秦弘燮의 금석문 관련 연구

수목 진흥섭은 불상과 석탑,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금석문과 관련하여서도 몇 편의 주요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 특히 경주 南山新城碑와 경상도 지역의 石氷庫 관련 금석문 이해에 있어서는 선구적인 중요한 연구를 남겼다.

수목의 금석문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주 남산신성비에 대한 판독과 해석이다. 이에 관해서는 두 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0년에 그 해 6월 남산 천왕사지 근처에서 남산신성 축조와 관련된 비석이 새롭게 발견된 것을 계기로 그에 대해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sup> 이 글에서는 새로 발견된 비석(제3비)의 발견경위와 형태에 대해 소개하고 새겨진 비문에 대한 판독과 내용 분석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인 1956년에 발견된 제2비(의 하반부)에 대해서도 형태와 비문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판독을 하고 있다. 이어서 1965년에는 당시까지 발견된 4개의 남산신성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sup>2</sup> 이 논문에서는 1934년에 발견된 제1비를 비롯하여 1960년 12월에 상반부가 추가로 발견되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제2비, 1960년 6월에 발견된 제3비, 그리고 제2비의 하단부와 함께 발견된 제4비(하단부만 존재) 등 네 개의 비석 전체에 대해 발견경위와 형태, 비문에 대한 판독과 내용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기존에 분석하였던 제3비에 대하여도 새로운 판독과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새로 발견된 비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전 논문의 분석에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새롭게 종합적인 고찰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3</sup> 1960년의 논문 발표 이후 새롭게 제2비 상반부와 제4비가 수습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남산신성비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미 학계의 검토가 이뤄졌던 제1비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제1비를 제외한 제2~4비는 모두 그가 경주분관장으로 재직할 때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이 비들에 대해 줄곧 관심을 가

1 秦弘燮, 「新發見 南山新城碑 小考」, 『歷史學報』 13 (1960).

2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 (1965).

3 秦弘燮, 위의 논문, p. 2.

지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 기준에 밝히지 못했던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의 논문에서는 비문에 보이는 ‘喙部主刀里受作’의 主刀里를 사람 이름으로 파악하고, 面石捉人·石捉人·小石捉人 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해석상에 한계가 있었지만, 1965년의 논문에서는 다른 비들의 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主刀里가 남산신성의 축조를 담당할 지역의 명칭임을 밝히고, 面石捉人·石捉人·小石捉人 등의 捉人 혹은 捉上人은 석공을 가리키는 것임을 정확하게 밝혀냈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네 개의 비문 내용에 대한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비의 공통적인 서술 구조를 밝혀냈고, 비문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직책과 관등, 소속부서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당시의 역역동원과 작업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비문의 판독과 내용 분석은 남산신성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후의 남산신성비를 비롯한 신라의 力役 관련 금석문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 발견된 다른 남산신성비들과 그밖의 역역 관련 금석문의 분석들은 대부분 이 논문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과 이해의 틀을 수용,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신라의 力役관련 금석문에 대한 기본적 분석틀을 제시한 연구로서 연구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목의 또 다른 중요한 금석문 관련 연구로는 경상도 지역의 석빙고 관련 금석문들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1961년에 대구의 석빙고 유적에 남아 있는 조선후기의 石氷庫碑의 내용을 소개하였고,<sup>4</sup> 1964년에는 경상도 지역의 여러 석빙고 관련 금석문들의 내용을 활용하여 경주 월성 석빙고의 건립시기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5</sup> 특히 후자는 경주 월성 석빙고의 축조연대를 밝히기 위하여 인근 경상도 여러 지역의 석빙고에 관한 금석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으로, 경주 월성 석빙고 뿐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석빙고의 건립 상황을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경주 인근 지역인 淸道의 石氷庫碑, 대구의 石氷庫碑, 昌寧의 石氷庫碑의 비문 내용과 『禮安邑誌』에 기록된 예안 석빙고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이들이 모두 18세기 전반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들과 양식적으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주 석빙고도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아가 경주 월성 석빙고의 楣石에 있는 ‘崇禎紀元後再辛酉秋八月移基改築’이라는 기록과 월성 석빙고 주변에서 발견한 ‘崇禎紀元後再戊午’에 건립된 석비의 내용을 토대로 월성 석빙고가 1738년(戊午)에 당시 慶州府尹 趙明謙에 의해 경상도내 다른 지역의 석빙고를 모델로 하여 건립되었고, 이후 불과

4 秦弘燮, 「大邱 石氷庫碑」, 『考古美術』 12 (1961).

5 秦弘燮, 「慶州 石氷庫의 築造年代」, 『梨大史苑』 5 (1964).

3년 뒤인 1741년(辛酉)에 조금 동쪽으로 옮겨졌음을 밝혀냈다. 경주 월성의 석빙고에 대해서는 『三國遺事』<sup>6</sup>와 『三國史記』<sup>7</sup>에 보이는 氷庫 건립 기사와 관련하여 신라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조선후기의 석빙고 관련 금석문 자료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월성 석빙고는 신라시기의 氷庫와는 무관한 것이고, 당시 경주 인근 지역에서 건립되고 있던 석빙고 제작과 궤를 같이하여 만들어졌음을 밝혀낸 것이다. 아울러 그 이전에는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氷庫가 돌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음을 밝혀냈다. 석빙고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인 분석으로서 이 논문에서 밝힌 사실들은 현재까지도 석빙고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석문 자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유물 자료의 역사적 성격을 밝힌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상도 지역의 석빙고 관련 금석문 자료의 검토는 아마도 경주분관장 시절에 경주 및 주변 지역의 유물 조사과정에서 석빙고 관련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생각된다.<sup>8</sup>

수목의 금석문 관련 연구로는 이밖에 충남 燕岐지역에서 발견된 佛碑像 명문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즉, 1961년 7월말 燕岐 鳥致院의 한 암자에 보관되어 있던 佛碑像 한 구를 조사하여 그 형태와 명문을 간략히 보고하였고,<sup>9</sup> 다음 해에는 이 불비상을 〈癸酉銘三尊千佛碑像〉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0</sup> 이 논문에서는 명문의 판독과 해석에 대해 다른 금석문 자료들과 비교하여 명문의 書體 및 刻字 상의 특징과 사용된 용어의 특성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명문에 보이는 ‘香徒名 弥次乃眞牟氏大舍 …’ 부분에 대해 眞牟氏는 『日本書紀』에 보이는 眞慕氏와 동일한 존재로서 백제 眞氏의 축약되지 않은 姓氏名이고, 弥次乃是 진모씨의 근거지 지명이며, 大舍는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 신라에서 받은 관등으로 파악하고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 불비상은 弥次乃 지역의 眞牟氏를 비롯한 백제계 귀족들에 의해 통일신라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논문은 불비상의 명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 불비상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려는 연구로서 이 불비상에 대한 이후의 연구에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불비상들에 대한 이해

6 『三國遺事』 권1 第三駕禮王 “製黎耜及藏氷庫.”

7 『三國史記』 권4 智證王 “(六年)冬十一月, 始命所司藏氷.”

8 관련 금석문이나 문헌 자료가 없어 경주 월성 석빙고 관련 논문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樹黙은 玄風 지역의 石氷庫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하여, 이 석빙고의 天井石에 주변 지역에 있는 불상의 光背가 사용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秦弘燮, 「玄風 石氷庫」, 『考古美術』9 (1961), p. 98.

9 秦弘燮, 「燕岐의 三尊千佛 碑像」, 『考古美術』14 (1961).

10 秦弘燮,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歷史學報』17-18 (1962).

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香徒名 弥次乃眞牟氏大舍 …’ 중 ‘弥次乃眞’의 ‘眞’은 판독이 불명확한데, 동일한 인물들에 의해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癸酉銘阿彌陀佛三尊四面石像>의 명문의 발원자 이름에 ‘上次乃末’ ‘久知乃末’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볼 때 ‘弥次乃末’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은 ‘弥次乃 지역의 眞牟氏 大舍’가 아니라 弥次乃末, 牟氏大舍 등 불비상 제작에 참여한 香徒 즉 발원자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弥次乃 다음의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음에도 이를 굳이 眞으로 판독하여 眞牟氏로 이해한 것은 당시 학계에서 『日本書紀』에 보이는 백제계 성씨 眞牟 혹은 眞慕가 『三國史記』에 보이는 眞氏와 동일한 성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학계의 연구에<sup>11</sup>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묵은 이 불비상의 명문이 학계의 기존 추론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금석문 자료와 관련된 연구로는 창덕궁 창고에서 발견된 北周의 납석제 불상에 새겨진 大象 2년(580)의 명문,<sup>12</sup> 익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일본인 소장의 盤龍鏡에 새겨진 명문,<sup>13</sup> 南原 雲峯 女院時 마애여래상에 대해 설명하는 光武 5년(1901)의 石碑 내용,<sup>14</sup> 안동 廣興寺 銅鍾에 새겨진 萬曆元年(1573)의 명문,<sup>15</sup> 동계 저울추에 새겨진 延祐元年(1214)의 명문<sup>16</sup> 등에 대해 소개하는 글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해당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명문의 판독에 그치고 있고 자세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연구로는 보기 힘들다. 한편 나말여초 시기에 활약한 선종 승려인 慈寂禪師와 澄曉大師의 탑비와 관련된 글도 발표하였지만<sup>17</sup> 주로 탑비의 현황에 관한 내용이고 비문의 판독과 해석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금석문 자료에 대한 연구로 보기는 힘들다.

### Ⅲ. 蕉雨 黃壽永의 금석문 관련 연구

초우 황수영은 미술사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1백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11 李弘稷, 「百濟人名考」, 『서울大學校論文集』1 (1954).

12 秦弘燮, 「大象二年銘 石造菩薩立像」, 『考古美術』19·20 (1962).

13 秦弘燮, 「益山出土의 龍氏作 盤龍鏡」, 『考古美術』44 (1964).

14 秦弘燮, 「南原 女院時의 磨崖如來像」, 『考古美術』52 (1964).

15 秦弘燮, 「廣興寺銅鍾」, 『考古美術』76 (1966).

16 秦弘燮, 「銅製 延祐元年銘 秤鍾」, 『考古美術』90 (1968).

17 秦弘燮, 「鳴鳳寺 慈寂禪師 凌雲塔碑」, 『考古美術』68 (1966); 同著, 「興寧寺 澄曉大師 遺蹟」, 『梨花史學研究』2 (1967).

에는 금석문 자료에 관한 글들도 적지 않다. 미술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에 기록된 여러 명문 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발표한 것으로, 금석문 자료에 관한 글은 그의 미술사 분야 전반에 관련되어 있다.

초우의 금석문 관련 논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범종 명문에 관한 글이다. 특히 주로 고려시대 범종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범종의 명문들을 함께 판독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1957년에 서울 奉恩寺에 있는 洪武 25년(1392)에 제작된 범종의 조사 내용을 보고하면서 그 명문 전체에 대한 판독문 및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960년부터 1973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考古美術』에 새롭게 조사된 고려시대 범종에 대해 소개하면서<sup>18</sup> 그중 명문이 있는 범종에 대해서는 해당 명문을 자세히 판독하여 제시하였다.<sup>19</sup>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범종연구회의 학회지인 『범종』에 새로 조사된 고려 범종과 조선시대 범종을 소개하면서 종에 새겨진 명문을 함께 판독하여 제시하였다.<sup>20</sup>

초우는 범종과 함께 禁口(盤子)와 香垸(香爐)의 명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 발표하였다. 禁口에 대해서는 먼저 1960년에 당시까지 확인된 신라와 고려시대의 명문을 가지고 있는 금구(반자) 23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중 20점에 대해서는 명문의 판독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21</sup> 금구(반자)의 명문은 『朝鮮金石總覽』에도 수록되어 않았고, 1950년대에 들어 일본 연구자들이 일본에 전래된 일부 금구의 명문을 소개하면서 비로소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 논문은 금구류의 명문에 대한 국내의 최초의 연구로서 국내와 일본에 전

<sup>18</sup> 수록 호수와 년도는 다음과 같다. 2호(1960), 5호(1960), 6호(1961), 31호(1963), 50호(1964), 73호(1966), 75호(1966), 76호(1966), 83호(1967), 84호(1967), 88호(1967), 101호(1969), 113·114호(1972), 117호(1973). (이 중 1967년까지 발표한 내용은 「高麗梵鐘의 新例」, 『예술원논문집』 8 (1969)에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 각각의 글에 소개된 범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최응천, 「황수영박사의 한국 범종 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 43 (2014), pp.288-291에 정리되어 있다.

<sup>19</sup> 蕉雨의 梵鐘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조사는 1950년 1월의 양양 선림원지 출토(1949년 출토) 신라범종에 대한 조사로서, 그 조사 내용은 신문지상(「雪嶽山出土 新羅梵鐘調查記」, 『自由新聞』 1950년 2월 2일-4일; 『한국의 불교미술』 (1974)에 재수록)에 보고되었다. 이 글에는 명문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만 언급되었고, 명문 전체의 판독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선림원지 신라범종의 명문은 함께 조사에 참여한 李弘植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보고되었고(「貞元廿年銘 新羅梵鐘」, 『國學論叢: 庸齋 白樂濬博士還甲記念』 (思想界社, 1955)), 이후 초우가 편찬한 『金石遺文』 (1962년)에 수록되었다.

<sup>20</sup> 黃壽永, 「癸未銘高麗鍾(附 無名鍾十一口)」, 『梵鐘』 7 (1984); 同著, 「高麗 甲申銘 善法院 銅鍾」, 『梵鐘』 10 (1987); 同著, 「明昌二年銘 高麗 興法寺銅鍾」, 『梵鐘』 12-13 (1990); 同著, 「康熙銘 固城雲興寺鍾銘-日本 東京根津미술관 소장-」, 『梵鐘』 10 (1987).

<sup>21</sup> 黃壽永, 「新羅高麗 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사학회, 1960), 23점 중 직접 조사하지 못하여 부록으로 수록된 일본 소장자의 3점은 제작 시기만 기록되고, 명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는 금구류의 명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명문에 보이는 금구류의 다양한 명칭들을 소개하면서 그 명칭을 금구계통(禁口·金鼓)과 반자계통(盤子·鉢子·半子·飯子·般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악기인 金鼓나 부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金口에서 유래하였고, 후자는 소반, 쟁반 등의 그릇을 총칭하는 ‘盤’에서 유래한 것으로 금구류가 飯僧행사와 사찰에서의 飯僧 소집의 신호로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제목에 金口라고 한 것은 가장 오래된 명문의 명칭을 따른 것으로서, 오래된 자료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에도 1960년대 전반기에 새로 조사한 금구류에 대해 보고하면서 각각의 명문의 판독문을 소개하였는데,<sup>22</sup> 특히 명문에 보이는 새로운 명칭(飯子·判子)에 주목하였다.

香垸(香爐)의 명문에 대해서는 1957년에 봉은사에 있는 至正 4년(1344)에 제작된 향로에 대해 조사하면서 103자에 달하는 향로의 명문을 직접 판독하여 소개하는 한편 명문 중에 보이는 縷銀·縷手 등의 용어에 대하여 다른 향로의 명문과 비교하여 설명하였고,<sup>23</sup> 이후 1960년대 초에 새로 확인된 고려시대 향완들에 대해 보고하면서 새겨진 명문의 판독문을 소개하였다.<sup>24</sup> 이어서 1963년에는 당시까지 확인된 고려시대 향완(향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명문을 가지고 있는 12점의 명문을 자세히 소개하였다.<sup>25</sup> 이 논문에서는 특히 명문에 보이는 香垸과 香爐라는 명칭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香垸이라는 명칭은 본래 흙으로 만들었던 그릇[垸]의 형태를 본뜬 것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명칭이 보다 이른 시기의 명문에 보이고 사용된 사례도 香爐에 비해 많으므로 학술적 용어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향완류에서 명문이 기입되는 위치와 기입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후에도 새로 확인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향완류에 대해 소개하면서 명문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다.<sup>26</sup> 이러한 향완류의 명문 소개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이상의 논문들에서 소개된 향완류의 명문은 이후의 연구와 금석문 자료집들에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본에 소장된 향완에

<sup>22</sup> 「高麗在銘 青銅 飯子의 新例」, 『美術資料』 2 (1960); 同著, 「高麗 大德九年銘 青銅 判子」, 『考古美術』 24 (1962); 同著, 「高麗正豐銘金鼓」, 『考古美術』 49 (1964); 同著, 「貞祐四年銘高麗青銅半子」, 『考古美術』 52 (1964).

<sup>23</sup> 黃壽永, 「奉恩寺소장 高麗香爐와 梵鐘의 조사」, 『東國史學』 5 (1957).

<sup>24</sup> 黃壽永, 「高麗銀入絲香垸의 新例」, 『美術資料』 1 (1960); 同著, 「在日 高麗 青銅銀入絲香垸의 新例」, 『考古美術』 12 (1961).

<sup>25</sup> 黃壽永, 「高麗青銅銀入絲香垸의 研究」, 『佛教學報』 1 (1963).

<sup>26</sup> 黃壽永, 「正德銘甬州北岳寺銀絲香垸」, 『考古美術』 51 (1964); 同著, 「正德銘甬州北岳寺銀絲香垸의 補」, 『考古美術』 53 (1964); 同著, 「高麗在銘香垸의 新例 二座」, 『考古美術』 88 (1967).

보이는 ‘大定四年丁卯’ 명문에 대하여 大定을 금나라 연호로 보고서 1164년의 명문인데 착오로 그 해의 간지인 甲申이 아닌 丁卯를 잘못 기입하였다고 한 설명은 이를 처음 소개한 일본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설명이다. 여기에 보이는 大定은 금나라 연호가 아니라 원나라 연호인 泰定의 異體字 표현으로 실제 泰定 4년(1327)의 간지는 丁卯로 명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초우는 범종과 금구류, 향완류의 명문을 광범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사찰의 대표적 금속제 佛具인 이들 세 가지 유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옛 기록 遺文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려는 그의 평소 의도<sup>27</sup>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만 초우는 이들 금속제 불구류의 명문에 대하여 판독문을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고, 개별 명문 자료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거나 명문들의 공통적, 개별적 특성을 검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본래 관심이 이들 불구류의 형태적 특성에 맞춰져 있었고, 명문의 내용이 대부분 간략하고 단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우는 금속제 불구류 이외에 불상과 탑의 조성과 관련된 금석문 자료들, 그리고 碑片 자료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하였다. 불상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1960년대 초에 燕岐 지역에서 발견된 佛佛像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들의 명문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고,<sup>28</sup> 이후 이들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면서 명문 전체의 판독문을 제시하였다.<sup>29</sup> 그리고 명문을 검토하여 達率이라는 백제 관등의 사용과 간지에 의한 연대 표현 등으로 볼 때 백제유민들에 의해 통일신라 초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宜寧 지역에서 발견된 延嘉 7년명 불상을 조사하면서 광배의 명문에 대해서 검토하고, 명문에 보이는 延嘉를 고구려의 逸年號로 추정하였다.<sup>30</sup> 1960년대 말에는 기존에 보고되어 있던<sup>31</sup> 경주 단석산 신선암 마애불상의 조상 명문을 새로 탁본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진전된 판독문을 제시하고, 아울러 명문의 주요 용어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해석하였다.<sup>32</sup> 이 판독을 통하여 序文과 銘 부분이 구별되

<sup>27</sup> 黃壽永, 「高麗青銅銀入絲香垞の研究」, 『佛教學報』1 (1963), p. 416.

<sup>28</sup> 黃壽永, 「碑岩寺所藏의 新羅在銘石像」, 『考古美術』4 (1960); 同著, 「燕岐蓮花寺의 石像」, 『考古美術』22 (1962).

<sup>29</sup> 黃壽永, 「忠南 燕岐 石像調査」, 『예술원논문집』3 (1964).

<sup>30</sup> 黃壽永, 「新國寶 高句麗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미술자료』8 (1963); 同著, 「國寶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考古美術』42 (1964).

<sup>31</sup> 洪思俊, 「上人岩造像銘記」, 『考古美術』29 (1962).

<sup>32</sup> 「단석산 신선사 석굴 마애상」, 『韓國佛像의 研究』(三和, 1973). 새로운 판독문 자체는 『金石遺文 第三輯』(1972)에 먼저 소개되었다.

고, 菩薩戒弟子와 같은 주요 용어가 확인되는 등 명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불상 조성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여전히 판독되지 못한 글자가 많고 이후에 수정된 글자들도 있지만,<sup>33</sup> 명문의 마멸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단석산 마애불상에 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판독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는 東海 三和寺 철제 노사나불상 背面의 명문을 처음으로 판독하여 보고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sup>34</sup> 이 명문에 나오는 ‘華嚴業決言大太德’과 ‘盧舍那佛’ 등의 내용은 이후의 신라 하대 화엄종의 동향에 대한 이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sup>35</sup>

탑 조성과 관련된 금석문에 대해서는 먼저 1961년에 일본 오사카시립박물관에 있던 조선 시대 팔각원당형 석탑의 탑비를 판독·소개하여 이 탑이 본래 양주의 奉迎寺에 있던 16세기에 조성된 석가사리탑임을 밝혔고,<sup>36</sup> 이후에는 10여 년간 도굴 등으로 반출된 신라와 고려시대의 탑에 봉안되었던 사리구와 탑지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면서 이들에 새겨져 있는 명문을 판독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사리구와 탑지가 본래 봉안되어 있던 석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문을 판독하고 간단한 설명을 하는데 그쳤지만,<sup>37</sup> 명문에 본래 봉안되었던 사찰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봉안되었던 탑을 확정하고 관련되는 문헌자료와 금석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탑이 조성되는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즉, 敏哀大王을 위한 石塔 건립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남석제사리호에 대해서는 ‘桐敷願堂’ 곧 桐華寺의 願堂이라는 명문의 내용을 토대로 본래 동화사 毘盧殿 앞의 석탑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역사자료를 이용하여 민애대왕의 명복을 비는 해당 석탑이 건립된 역사적 상황과 신라하대의 왕실과 귀족들에 의한 願刹과 願塔 건립 상황을 자세히 논하였다.<sup>38</sup> 그리고 명문에 法光寺石塔記라고 기록된 탑의 지석에 대해서는 포항의 飛鶴山에 위치한 法光寺 석탑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탑 옆에 위치한 1750년에 건립된 석탑중수비

33 3행 하단부의 ‘菩薩戒弟子岑珠口’가 ‘菩薩戒弟子岑喙口’로 수정된 것(辛鍾遠,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미륵신앙집단에 대하여-新羅 中古期の王妃族 岑喙部』, 『歷史學報』 143 (1994))이 대표적 사례이다.

34 黃壽永, 『三和寺의 新羅鐵佛坐像의 背刻銘記』, 『문화사학』 8 (1997).

35 金相鉉, 『三和寺鐵佛과 華嚴業 決言大太德』, 『문화사학』 11-12-13합집 (1999) 참조.

36 黃壽永, 『日本 大阪 美術館의 李朝舍利塔』, 『考古美術』 15 (1961). 이 탑은 1987년에 국내에 환수되었다.

37 黃壽永, 『高麗在銘 舍利塔』, 『考古美術』 19-20 (1962); 同著, 『新羅塔誌石과 舍利壺』, 『미술자료』 10 (1965); 同著, 『統和와 正德銘의 塔誌石』, 『考古美術』 97 (1968).

38 黃壽永,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 3 (1969).

의 내용을 토대로 이 석탑의 중수 과정 및 중수 당시에 발견된 사리구의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sup>39</sup> 또한 황룡사 심초석 사리공에서 도굴된 사리구 일괄 유물과 관련하여서는 금동 방형사리함에 기록된 塔誌(刹柱本記)를 판독하고 그 내용을 『삼국유사』 등의 내용과 비교하여 탑의 건립 및 중수 상황과 황룡사 탑의 실제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탑지의 뒷부분에 기록된 成典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록에 보이지 않던 皇龍寺成典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sup>40</sup> 한편 이 황룡사탑 사리구와 함께 회수된 금동제 원통에 대해서는 명문을 판독하여 소개하였지만, 명문에 보이는 石塔이라는 용어가 황룡사탑과 맞지 않고 탑의 중수시기로 기록된 中和 3년(872)의 연대가 황룡사 탑지(찰주본기)보다 늦다는 점을 근거로 황룡사탑과는 무관한 별도의 석탑에 들어 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1</sup>

초우는 원래의 비석이 파괴되고 일부 단편들만 수습된 碑片들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하였다. 1968년 4월 경주의 고물상에서 송복사지에서 출토된 비편 5점을 구입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였고,<sup>42</sup> 같은 해 10월에는 춘천 청평사를 방문하여 1949년 정신이상자의 방화로 파괴된 비편들의 잔존 상황을 조사하고 원비의 탁본을 토대로 이들 비편의 본래 위치를 확인하였다.<sup>43</sup> 한편 같은 해 9월에는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聖住寺址 출토의 비편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崔致遠이 찬술한 朗慧和尚碑와 후대에 찬술된 『崇巖山聖住寺事蹟』 등에 보이는 金立之 찬술의 聖住寺事蹟碑의 일부임을 논하였다. 아울러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김립지의 활동연대를 파악하고 다시 이에 의거하여 해당 비문의 찬술시기를 847년에서 857년 사이로 추정하였다.<sup>44</sup> 단 두 점의 비편과 단편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그때까지 전혀 주목되지 않던 김립지 찬술의 성주사사적비의 기본적 성격을 밝혀낸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성주사지에서 새롭게 출토된 비편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모두 김립지 찬술 성주사비의 일부임을 밝히는 한편 原碑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해당하는 비편과의 대조를 통하여 해당 비석의 이수와 귀부를 확인하였다.<sup>45</sup> 실물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내용 뿐 아니라 비석의 원래 형태가

39 黃壽永, 「新羅 法光寺 石塔記」, 『白山學報』 8 (1970).

40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刹柱本記에 대하여」, 『考古美術』 116 (1972); 同著,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41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p. 37.

42 黃壽永, 「新羅 崇福寺碑片」, 『考古美術』 96 (1968).

43 黃壽永, 「淸平寺 文殊院記碑片의 調査」, 『考古美術』 99 (1968).

44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 『文化財』 4 (1969).

45 黃壽永,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 續」, 『考古美術』 115 (1972); 同著,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其三)」, 『考古美術』 117 (1973).

지 복원해낸 치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에는 2년 전에 경주에서 수습된 비편을 조사하여 그것이 1915년에 하반부 일부가 발견되었던 高仙寺 誓幢和上碑의 상반부 일부에 해당함을 밝히고 양자를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비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였다.<sup>46</sup> 이 글에서는 특히 비문에 새로 발견된 비편에 보이는 金彦昇, 즉 憲德王의 활동시기를 토대로 비석의 찬술시기를 9세기초로 확인하는 한편 비석의 명칭에 대해 元曉의 탑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기존의 誓幢和上塔碑가 아닌 誓幢和上碑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당화상비에 대한 검토는 원효의 행적 및 신라 하대의 원효 현창에 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도 서당화상비에 대한 기본적 연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초우는 이밖에도 새로 조사된 금석문 자료들에 대해 소개하는 몇 편의 글<sup>47</sup>과 삼국시대의 대표적 금석문에 대해 정리하는 글<sup>48</sup>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해당 금석문의 원문을 소개하고 그 성격을 개관하는 것으로서 명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 IV. 『韓國金石遺文』의 성격과 연구사적 의의

초우는 앞 장에서 검토한 여러 금석문 자료들에 대한 조사, 연구 이외에 해방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다양한 금석문 명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금석문 자료집 편찬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먼저 1963년 8월에 당시까지 수집한 135건의 금석문 명문의 판독문을 수록한 『金石遺文』을 고고미술동인회의 고고미술자료 제2집으로 간행하였다. 수록된 금석문 자료는 碑銘, 塔銘, 造像銘, 鍾銘, 香垵銘, 禁口銘, 器銘類로 구분한 후 시대 순으로 배열하여 실었고, 각 항목 뒤에는 해당 금석문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註와 참조자료를 附記하여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朝鮮金石總覽』에 없는 금석문 자료를 수록하였지만 鍾銘만은 예외적으로 『조선금석총람』에 있는 것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어서 1967년에는 그 이후에 수집한 금석문 자료들을 모아 『續金石遺文』을 고고미술자료 제15집으로 간행하였고, 1972년에는 『속금석유문』 간행 이후에 수집한 자료들을 모아 『金石遺文 第三輯』을 고고미술자료 제21

<sup>46</sup> 黃壽永, 「新羅誓幢和上碑의 新片-建立年代와 名稱에 대하여」, 『考古美術』 108 (1970).

<sup>47</sup> 黃壽永, 「法華寺藏 三角塔印에 대하여」, 『考古美術』 3 (1960); 同著, 「高麗 崔沆과 崔珙의 墓誌」, 『考古美術』 106·107 (1970); 同著, 「金石文의 新例」, 『韓國學報』 5 (1976).

<sup>48</sup> 黃壽永, 「三國의 金石文資料」, 『佛敎와 諸科學: 開校八十周年紀念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집으로 간행하였다. 이 세 책은 각각 새로 수집한 금석문 자료를 모은 자료집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중복하여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1960년대말에 본인이 새롭게 판독한 경주 斷石山의 上人庵造像銘記만은 『금석유문』에 수록되었음에도 『금석유문 제3집』에 再錄하였다. 이들 세 종류의 『금석유문』은 모두 개인이 謄寫本으로 간행하여 유포에 한계가 적지 않았던 반면 197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학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 책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1976년에 기존의 3종의 『금석유문』의 내용을 모두 합하고 여기에 새로 수집한 자료를 추가한 종합본 금석문 자료집인 『韓國金石遺文』을 一志社에서 일반 상업출판물로서 간행하게 되었다.

『한국금석유문』은 『금석유문』과 마찬가지로 碑銘, 塔(燈)銘, 造像銘, 鍾銘, 香坑銘, 禁口銘, 器銘類 등으로 구성되었고, 1976년 초판본 간행 이후 1978년, 1981년, 1985년, 1994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증보되었다. 『한국금석유문』은 자료집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료들을 증보하며 판이 바뀌 때마다 수록 자료의 양이 늘어났던 것이다. 각각의 증보판은 이전의 『금석유문』과 달리 이전 판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그 뒤에 새로 증보된 자료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즉, 초판본의 내용 뒤에 제2판의 증보분이 수록되고, 다시 그 뒤에 제3판의 증보분이 수록되는 형식이었다. 초판본 간행 당시 334항목이던 수록 자료의 수는 1994년의 제5판에는 452항목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에 초우의 전집을 간행하면서 『한국금석유문』은 전집 제4책의 『금석유문』으로 새롭게 편집되었다. 전집본 『금석유문』은 기존의 일지사본 『한국금석유문』과 달리 가로 조판으로 바뀌었고 누가적 형태였던 증보된 내용들을 종류별로 다시 모아 시대순으로 편집하여 열람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참조자료에 당시까지 간행된 관련 연구들을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sup>49</sup> 전집본 『금석유문』은 일지사본 『한국금석유문』을 새롭게 편집하고 이름을 바꾸었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그대로 수록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한국금석유문』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금석유문』과 그것을 계승 발전시킨 『한국금석유문』은 『조선금석총람』이 기본적인 금석문 자료집으로 이용되던 시기에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 보다 확대된 금석문 자료를 학계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금석문 자료들을 꾸준히 증보함으로써 계속하여 살아있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연구자들

<sup>49</sup> 그렇지만 참조자료에 추가된 연구물들이 제시한 판독 의견들은 본문의 판독문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 이 『금석유문』과 『한국금석유문』을 통해 새로 수집된 금석문 자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의 학계에서 금석문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발전 되는 데에는 이 책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漢宮圖의 유형

금석유문	金石遺文(1963)	碑銘	15		
		塔銘	14 (附1, 석등명)		
		造像銘	15 (附1, 관촉사석불백호)		
		鍾銘	38 (附2, 부록-금석총람소재 종명목록)		
		香垞銘	14		
		禁口銘	24		
		器銘類	13		
		補遺	1 (墓誌)		
		합계	135		
	續金石遺文 (1967)	碑銘	17 (附3)	부록: 『금석유문』補訂 『금석유문』正誤	
		塔燈銘	20		
		造像銘	8 (附3)		
		鍾銘	10 (附1)		
		香垞銘	6		
		禁口銘	6 (附1)		
		器銘 기타	19		
		합계	85		
	金石遺文 第3輯 (1972)	碑銘	23	再錄1 (上人庵造像銘記, 『금석유문』에 수록되었음)	
		塔銘	5 (附2)		
		造像銘	4 (附7)		
		鍾銘	6 (附2)		
		香垞銘	9		
	金石遺文 第3輯 (1972)	禁口銘	12	再錄1 (上人庵造像銘記, 『금석유문』에 수록되었음)	
		器銘 기타	16		
		追補	7 (묘지명1, 조상명3, 탑명1, 향완명1, 기명1)		
		합계	82		
	한국 금석유문	초판 (1976)	碑銘	49	
			塔燈銘	48 (附1)	
造像銘			33 (附8)		
鍾銘			68		

한국 금석유문	초판 (1976)	香垞銘	34	
		禁口銘	47	
		器銘 기타	55	
		합계	334[(135+85+81)+33]	
	2판 (1978)	碑銘	증보 16	
		塔銘	증보 2 (附2)	
		造像銘	증보 2	
		鍾銘	증보 1 (附1)	
		香垞銘	증보 2	
		禁口銘	증보 1	
		器銘 기타	증보 19	
	합계	377 [334+43]		
	3판 (1981)	碑銘	증보 5	
		造像銘	증보 1	
		鍾銘	증보 2	
		禁口銘	증보 2	
		器銘 기타	증보 5	
		합계	392 [377+15]	
	4판 (1985)	碑銘	증보 4	
		造像銘	증보 3	
		鍾銘	증보 1	
		香垞銘	증보 3	
		禁口銘	증보 4	
		器銘 기타	증보 1	
	합계	408 [392+16]		
	5판 (1994)	碑銘	12	
		塔銘	9	
		造像銘	3	
鍾銘		4		
香垞銘		2		
禁口銘		5		
5판 (1994)	器銘 기타	9		
	합계	452 [408+44]		
전집본 (1999)	碑銘	86		
	塔燈銘	60		
	造像銘	43		
	鍾銘	77		
	香垞銘	47		
	禁口銘	59		
	器銘 기타	98		
	합계	470 [452+18]		

『금석유문』과 『한국금석유문』은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금석문 자료집의 모범이자 원자료의 제공원이 되었다. 『한국금석유문』에 앞서 1968년에 일반 상업출판물로 간행된 『金石文追補』의 경우 여기에 수록된 금석문 자료 중 고려시대 墓誌銘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가 『금석유문』과 『속금석유문』에 수록된 것을 재록하였고, 1984년에 간행된 『韓國金石全文』과 그 이후의 여러 금석문 자료집들에도 『한국금석유문』에 수록된 판독문과 설명들이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석유문』과 『한국금석유문』은 현대 한국 금석문 자료집의 시원이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석유문』과 이를 계승한 『한국금석유문』이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자료들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한국 금석문 자료집을 지향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는 기존 연구 성과를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을 무리하게 활용하려 하지 않은 학문적 태도의 반영으로 생각되지만, 해방 이후의 학계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판독문의 오류들이 지적되면서 이를 수정한 새로운 금석문 자료집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조선금석총람』을 보완하는 ‘遺文’으로만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 반면 기존에 수록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를 통해 보다 진전된 판독이 제시된 경우에도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동시에 발전된 판독 의견이 수용되었다면 보다 신뢰도 높은 금석문 자료집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수묵 진홍섭과 초우 황수영의 금석문 자료에 관한 연구의 내용과 연구사적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두 분은 일찍이 한국 미술사와 역사학 연구에서 금석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학계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분이 이처럼 금석문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은사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초우가 『한국금석유문』의 발문을 비롯한 여러 글에서 우현 선생을 따라 개성 인근의 古碑들을 탁본한 짧은 시절의 경험이 금석문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씨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우현 선생은 일찍이 금석문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이 수묵과 초우에게 계

승되었던 것이다.

금석문 자료에는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구체적 개인들의 특별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형성되는 매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연을 덕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미술사와 역사학의 대상이 되는 유물 자료의 성립에 대한 매우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이해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현 선생을 계승한 수묵과 초우는 금석문에 대한 관심과 분석을 선구적으로 실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미술사와 역사학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학문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현재의 후학들은 이러한 연구 태도와 방법을 계승하여 금석문 자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생생한 과거의 역사상을 그려내는 동시에 금석문 자료에 담긴 정보를 보다 폭넓게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학제적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금석문 자료들을 망라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판독 성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금석문 자료집(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key words)**\_금석문(金石文, Inscriptions),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 the Steles of New Mt. Namsan Castle in Gyeongju), 석빙고(石氷庫, Stone Ice Storage), 단석산마애불(斷石山摩崖佛, Rock-carved Buddhas in Mt. Danseoksan), 범종(梵鐘, Buddhist Bell), 금구(禁口, Buddhist Gong), 향완(香垸, Buddhist Censer), (한국)금석유문(韓國金石遺文, Korean Inscriptions Supplement)

## 참고문헌

- 金相鉉, 「三和寺鐵佛과 華嚴業 決言大大德」, 『문화사학』 11.12.13, 1999
- 辛鍾遠,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미륵신앙집단에 대하여-新羅 中古期の 王妃族 岑喙部」, 『歷史學報』 143, 1994
- 李弘稷, 「百濟人名考」, 『서울大學校論文集』 1, 1954
- 李弘植, 「貞元廿年銘 新羅梵鍾」, 『國學論叢: 庸齋 白樂濬博士還甲記念』, 思想界社, 1955
- 秦弘燮, 「新發見 南山新城碑小考」, 『歷史學報』 13, 1960
- \_\_\_\_\_, 「玄風 石氷庫」, 『考古美術』 9, 1961
- \_\_\_\_\_, 「大邱 石氷庫碑」, 『考古美術』 12, 1961
- \_\_\_\_\_, 「燕岐의 三尊千佛 碑像」, 『考古美術』 14, 1961
- \_\_\_\_\_, 「癸酉銘三尊千佛碑像에 對하여」, 『歷史學報』 17-18, 1962
- \_\_\_\_\_, 「大象二年銘 石造菩薩立像」, 『考古美術』 19-20, 1962
- \_\_\_\_\_, 「益山出土의 龍氏作 盤龍鏡」, 『考古美術』 44, 1964
- \_\_\_\_\_, 「南原 女院時의 磨崖如來像」, 『考古美術』 52, 1964
- \_\_\_\_\_, 「慶州 石氷庫의 築造年代」, 『梨大史苑』 5, 1964
- \_\_\_\_\_,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 1965
- \_\_\_\_\_, 「鳴鳳寺 慈寂禪師 凌雲塔碑」, 『考古美術』 68, 1966
- \_\_\_\_\_, 「廣興寺銅鍾」, 『考古美術』 76, 1966
- \_\_\_\_\_, 「興寧寺 澄曉大師 遺蹟」, 『梨花史學研究』 2, 1967
- \_\_\_\_\_, 「銅製 延祐元年銘 秤錘」, 『考古美術』 90, 1968
- 崔應天, 「황수영박사의 한국 범종 연구와 성과」, 『강좌미술사』 43, 2014
- 洪思俊, 「上人岩造像銘記」, 『考古美術』 29, 1962
- 黃壽永, 『金石遺文』, 고고미술동인회, 1962
- \_\_\_\_\_, 『續金石遺文』, 고고미술동인회, 1967
- \_\_\_\_\_, 『金石遺文 第三輯』, 고고미술동인회, 1972
- \_\_\_\_\_, 『韓國佛像의 연구』, 三和, 1973
- \_\_\_\_\_,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1978년, 1981년, 1985년, 1994년 증보)
- \_\_\_\_\_, 『黃壽永全集4-金石遺文』, 혜안, 1999
- \_\_\_\_\_, 「奉恩寺소장 高麗香爐와 梵鍾의 조사」, 『東國史學』 5, 1957
- \_\_\_\_\_, 「高麗 銀入絲香垵의 新例」, 『美術資料』 1, 1960
- \_\_\_\_\_, 「高麗在銘 青銅 飯子의 新例」, 『美術資料』 2, 1960
- \_\_\_\_\_, 「法華寺藏 三角塔印에 대하여」, 『考古美術』 3, 1960

- 黃壽永, 「新羅高麗 在銘禁口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사학회, 1960
- \_\_\_\_\_, 「碑岩寺所藏의 新羅在銘石像」, 『考古美術』4, 1960
- \_\_\_\_\_, 「在日 高麗 青銅銀入絲香垵의 新例」, 『考古美術』12, 1961
- \_\_\_\_\_, 「日本 大阪 美術館의 李朝舍利塔」, 『考古美術』15, 1961
- \_\_\_\_\_, 「高麗在銘 舍利塔」, 『考古美術』19-20, 1962
- \_\_\_\_\_, 「燕岐蓮花寺의 石像」, 『考古美術』22, 1962
- \_\_\_\_\_, 「高麗 大德九年銘 青銅'判子」, 『考古美術』24, 1962
- \_\_\_\_\_, 「新國寶 高句麗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미술자료』8, 1963
- \_\_\_\_\_, 「高麗青銅銀入絲香垵의 研究」, 『佛教學報』1, 1963
- \_\_\_\_\_, 「忠南 燕岐 石像調查」, 『예술원논문집』3, 1964
- \_\_\_\_\_, 「國寶 延嘉七年銘 金銅如來立像」, 『考古美術』42, 1964
- \_\_\_\_\_, 「高麗正豐銘金鼓」, 『考古美術』49, 1964
- \_\_\_\_\_, 「正德銘甫州北岳寺銀絲香垵」, 『考古美術』51, 1964
- \_\_\_\_\_, 「貞祐四年銘高麗青銅半子」, 『考古美術』52, 1964
- \_\_\_\_\_, 「正德銘甫州北岳寺銀絲香垵의 補」, 『考古美術』53, 1964
- \_\_\_\_\_, 「新羅塔誌石과 舍利壺」, 『美術資料』10, 1965
- \_\_\_\_\_, 「高麗在銘香垵의 新例 二座」, 『考古美術』88, 1967
- \_\_\_\_\_, 「新羅 崇福寺碑片」, 『考古美術』96, 1968
- \_\_\_\_\_, 「統和와 正德銘의 塔誌石」, 『考古美術』97, 1968
- \_\_\_\_\_, 「清平寺 文殊院記碑片의 調査」, 『考古美術』99, 1968
- \_\_\_\_\_, 「新羅 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3, 1969
- \_\_\_\_\_,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 『文化財』4, 1969
- \_\_\_\_\_, 「高麗梵鍾의 新例」, 『예술원논문집』8, 1969
- \_\_\_\_\_, 「新羅 法光寺 石塔記」, 『白山學報』8, 1970
- \_\_\_\_\_, 「高麗 崔沆과 崔珙의 墓誌」, 『考古美術』106·107, 1970
- \_\_\_\_\_, 「新羅誓幢和上碑의 新片-建立年代와 名稱에 대하여」, 『考古美術』108, 1970
- \_\_\_\_\_,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續」, 『考古美術』115, 1972
- \_\_\_\_\_,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刹柱本記에 대하여」, 『考古美術』116, 1972
- \_\_\_\_\_,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其三)」, 『考古美術』117, 1973
- \_\_\_\_\_,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東洋學』3, 1973
- \_\_\_\_\_, 「金石文의 新例」, 『韓國學報』5, 1976
- \_\_\_\_\_, 「癸未銘高麗鍾(附 無名鍾十一口)」, 『梵鍾』7, 1984
- \_\_\_\_\_, 「高麗 甲申銘 善法院 銅鍾」, 『梵鍾』10, 1987
- \_\_\_\_\_, 「康熙銘 固城雲興寺鍾銘-日本 東京根津미술관소장-」, 『梵鍾』10, 1987

黃壽永, 『三國의 金石文資料』, 『佛敎와 諸科學: 開校八十周年紀念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_\_\_\_\_, 『明昌二年銘 高麗 興法寺銅鍾』, 『梵鍾』12·13, 1990  
\_\_\_\_\_, 『三和寺의 新羅鐵佛坐像의 背刻銘記』, 『문화사학』8, 1997

## 국문초록

樹黙 秦弘燮(1918-2010)과 蕉雨 黃壽永(1918-2011)은 한국 미술사와 역사학 연구에서 금석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하는 동시에 그 성과를 학계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진홍섭의 금석문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주 남산신성비에 대한 연구이다. 중앙박물관 경주 분관장 재직시 남산신성비들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당시까지 발견된 네 개의 비를 비교 분석하여 각 비의 공통적인 서술 구조를 밝혀내고, 당시의 역역동원과 작업 구조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남산신성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후의 신라의 力役 관련 금석문에 대한 이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또한 경상도 지역에 남아 있는 석빙고 관련 금석문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의 석빙고 건립 동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경주 월성 내 석빙고의 제작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냈다.

황수영의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크게 梵鐘과 禁口(盤子), 香垸(香爐) 등의 금속제 佛具에 새겨진 명문에 대한 망라적 조사와 일부 불상과 탑의 조성 관련 금석문 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는 고대와 고려시대의 해당 불구의 명문을 가능한 한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려 하였지만, 새겨진 명문에 대하여 판독문을 제시하고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고, 개별 명문 자료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거나 명문들의 공통적, 개별적 특성을 검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연기지역 불비상군, 단석산 마애불, 삼화사 철계불상, 황룡사탑, 동화사 비로전석탑, 법광사석탑 등에 대하여 불상이 명문과 탑의 사리기 명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불상과 석탑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건립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한 파괴되어 없어진 비석의 남은 비편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였는데, 특히 김립지가 찬술한 성주사사적비와 고선사 서당화상비의 경우 새로운 碑片을 발견하여 원래의 비석의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해당 비석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수영은 개별 금석문에 대한 조사와 연구와는 별개로 『조선금석총람』에 누락된 새로 발견된 금석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금석유문』 발간 작업을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63년에 처음 간행된 『금석유문』은 1967년과 1972년 두 차례의 속집을 추가한 후 1976년에 『한국금석유문』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1999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증보되었다. 첫 『금석유문』 간행당시 135항목이던 수록 금석문은 1999년의 최종판에는 모두 470항목으로 확대되었다. 『금석유문』과 『한국금석유문』은 현대 한국 금석문 자료집의 시원으로서,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를 비롯한 한국학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홍섭과 황수영의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한국 미술사와 역사학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학문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서 기초적 성과로 활용되고 있다.

## Chin Hong-sup's and Hwagn Su-yeong's Researches on the Inscription Materials

Choe, Yeon shik\*

Chin Hong-sup(1918~2010) and Hwang Su-yeong(1918~2011) are the pioneers of the inscriptions study in modern Korea. They understood the significance of inscription materials in art history and tried to collect and research them. They also tried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the others.

Chin's most important inscription researches are on the steles of New Namsan Castle in Gyeongju. He compared the four steles of the New Namsan Castle, three of them were found during his directorship of Gyeongju museum, and found the common structure of the description. On this, he suggested a basic understanding on the mobilizing of labors and working system. His researches has been useful not only on the study of the steles but also on the other labor mobilizing inscriptions in Shilla period. He also studied on the epigraph of stone ice storages in Gyeongsang province. With the comprehensive survey on the stone ice storages in the province including the architectural structure and the inscriptions about them, he found out the circumstances of the stone ice storages building boom in the 18<sup>th</sup> century. He also solved the argument on the building time of the stone ice storage in Gyeongju by checking the inscription on it with the other records. It was made in 1738 imitating other stone ice storages in the neighbor districts.

Hwang's inscription research was mainly to collect and decipher the inscriptions of Shilla and Goryeo dynasties. He had special interest in the inscriptions of the Buddhist bells, Buddhist

---

\* Prof, Dongguk University - Seoul

gongs, and Buddhist censers. As a part of the study of the art of the Korean temple, he collected the inscriptions on the Buddhist instruments. He tried to collect the inscriptions as many as possible and deciphered them. The inscriptions we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period of the instruments. He also showed great interest in some inscriptions of Buddhist statues and pagodas such as the Buddha statues stele in Yeon'gi area, Rock-carved Buddhas in Mt. Danseok-san, Hwangryong-sa pagoda, and Donghwa-sa Biro-jeon stone pagoda. He dared the troubles to decipher the inscriptions and to check it with other historic records. Through the efforts he was able to reveal some important facts on the making of the statues and pagodas. He also had special attention to the fragments of the lost steles. He found a part of Wonhyo's stele and several fragments of the Seongju-sa temple stele, and tried to restore the original forms and contents of them.

Hwang's interest in the inscriptions compelled him to compile the *Korean Inscriptions Supplement*. The first version of it appeared in 1962 with the 135 inscriptions. He made the sequels of it in 1967 and 1972, and combined them to a new enlarged one with 334 inscriptions in 1976. The combined book had been revised 6 times and the last version in 1999 contained 470 inscriptions. The *Korean Inscriptions Supplement* was the origin of the inscription study in Korea after the independence and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as a basic source book for Korean study.